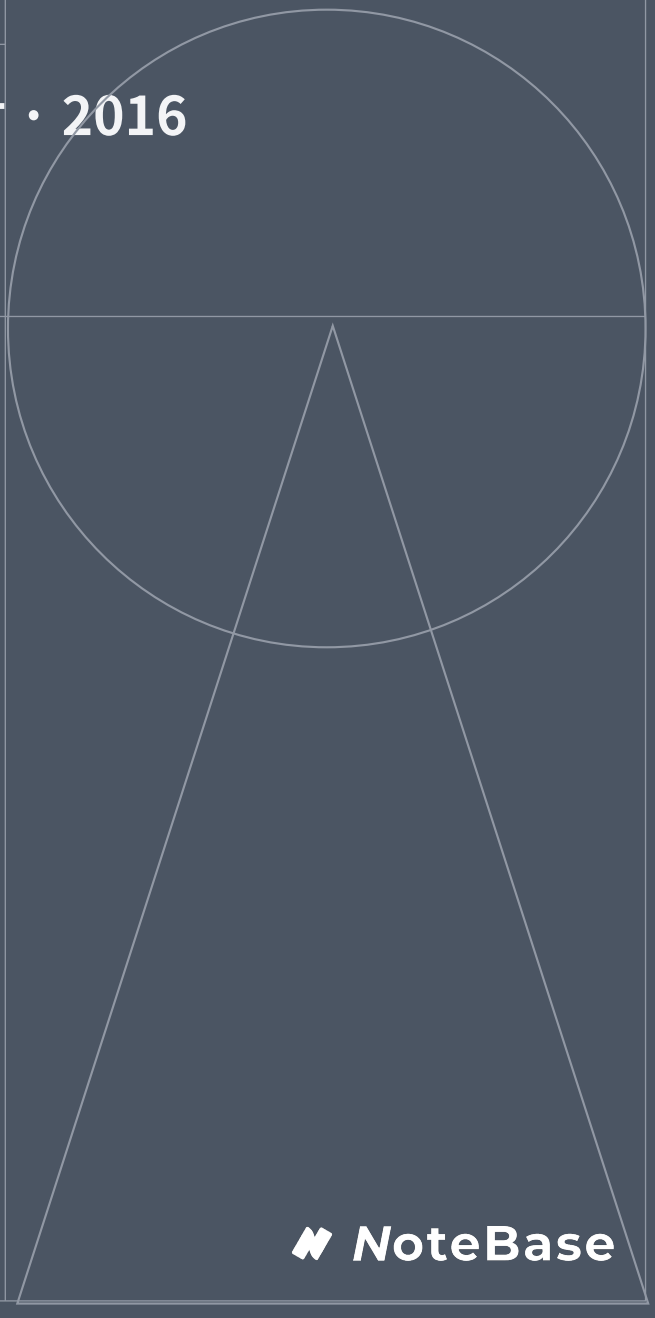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6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16

문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②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④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높으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모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충당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으며 자원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석에 공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예를 들어 제품보증의무는 수리비를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부채로 기록한다. 시기나 금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채 인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지가 다르다. 충당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도 공시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자원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석에 공시한다. 따라서 '모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를 '충당부채는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석에 공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지에서 제시한 현재 의무의 존재와 높은 자원 유출가능성은 이 가운데 필요한 두 요건이다.

④ O: 현재 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더라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한다. 단순히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신뢰성 있는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다르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5년 초에 취득원가 ₩85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내용연수는 4년(잔존가액 ₩50,000)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2016년 말에 처음으로 손상징후가 있었으며,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과 ₩350,000이었다. 2016년 말에 인식해야할 손상차손은?

① ₩0

② ₩50,000

③ ₩100,000

④ ₩1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은 손상검사 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2016년 말 장부금액은 450,000원이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350,000원이 회수가능액이므로 손상차손은 1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연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850{,}000 - 50{,}000}{4} = 200{,}000$원이다.

손상검사 전 장부금액: 2015년 초 취득하여 2016년 말까지 2년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 \times 2 = 400{,}000$원이다. 이전 손상이 없으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850{,}000 - 400{,}000 = 45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자산을 처분하거나 계속 사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므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순공정가치 300,000원보다 사용가치 350,000원이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350,000원이다.

손상차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자산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450{,}000 - 350{,}000 = 100{,}000$원이며, 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은 350,000원이 된다. 계산한 손상차손 100,0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매출채권과 그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충당금설정법을 사용할 경우, 기말에 인식하여야 하는 대손상각비는? (단,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매출채권이며, 기중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없다)

	기초	기말
매출채권	₩26,000	₩30,000
추정 미래현금흐름	₩24,500	₩26,500

① ₩2,000

② ₩3,000

③ ₩4,000

④ ₩5,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손상각비는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전액이 아니라 **기존 잔액에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다. 기말 필요액 3,500원에서 기존 잔액 1,500원을 차감한 2,0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기초 대손충당금: 충당금설정법은 매출채권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과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차이로 충당금을 구한다. 기초 대손충당금은 26,000 − 24,500 = 1,500원이며, 기중 변동이 없으므로 **기말 조정 전에도 1,500원**이 남아 있다.

기말 필요 대손충당금: 기말 매출채권 30,000원 중 회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6,500원이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30,000 − 26,500 = 3,500원이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어야 한다.

기말 대손상각비: 필요한 충당금 3,500원 중 1,500원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금액만 추가 설정**한다. 대손상각비는 3,500 − 1,500 = 2,000원으로, ①의 금액에 해당한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2,0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00원을 기록하면 충당금 잔액이 3,500원이 되어 매출채권 순액은 추정 회수액인 26,500원이 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5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당해 연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전부원가계산방법과 변동원가계산방법을 사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방법과 두 방법 간 영업이익의 차이는?

◯ 제품생산량 1,000개 ◯ 제품판매량 800개
◯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0 ◯ 고정판매비와 관리비 ₩1,100,000
◯ 기말 재공품은 없음

①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방법: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 ₩200,000
②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방법: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 ₩200,000
③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방법: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 ₩220,000
④ 영업이익이 더 높은 방법: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 ₩2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판매되지 않은 제품 200개에 배분된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원**은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고에 남지만,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당기비용이 된다. 따라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200,000원 더 높다.

NoteBase

계산 과정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비용 인식 시점**에서 발생한다.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여 판매된 제품의 몫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변동원가계산은 이를 제품원가에서 제외하고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 처리한다. 고정판매비와 관리비 1,100,000원은 두 방법 모두 당기비용이므로 영업이익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기말제품 수량: 2015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기초제품이 없고 기말 재공품도 없으므로, 생산한 1,000개 중 판매한 800개를 제외한 200개가 기말제품으로 남는다. 기말제품 수량은 1,000 − 800 = 200개이다.

제품 1개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원가계산이므로 실제 발생액 1,000,000원을 **실제 생산량 1,000개**에 배분한다. 단위당 배분액은 $\frac{1,000,000}{1,000} = 1,000$원/개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당기비용: 전부원가계산에서는 판매된 제품 800개의 몫인 800 × 1,000 = 800,000원만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나머지 200 × 1,000 = 200,000원은 **기말제품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월**된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발생액 1,000,000원 전부가 당기비용이다.

영업이익 차이: 전부원가계산의 당기비용이 1,000,000 − 800,000 = 200,000원 더 적으므로,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이 200,000원 더 높다. 이는 ①의 방법과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 총매출액 ₩ 300,000 ◯ 매출에누리 ₩ 20,000
◯ 총매입액 ₩ 210,000 ◯ 매입할인 ₩ 10,000
◯ 매출총이익 ₩ 100,000 ◯ 기말 상품 재고액 ₩ 55,000

① ₩ 15,000
② ₩ 25,000
③ ₩ 35,000
④ ₩ 4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을 순매출액에서 빼면 매출원가는 180,000원이다.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더하고 순매입액을 빼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35,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순매출액 계산: 매출에누리는 판매대금에서 깎아 준 금액이므로 총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순매출액은 300,000 − 20,000 = 280,000원이다.

2. 매출원가 계산: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는 280,000 − 100,000 = 180,000원이다.

3. 순매입액 계산: 매입할인은 상품 매입대금의 조기 지급 등으로 할인받은 금액이므로 총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당기에 매입한 상품의 순매입액은 210,000 − 10,000 = 200,000원이다.

4. 기초 상품 재고액 계산: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당기 순매입액을 합하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가 된다. 여기서 **기말에 남은 상품의 원가를 빼면 매출원가**가 되므로, 기초 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더하고 순매입액을 빼서 구한다. 따라서 180,000 + 55,000 − 200,000 = 35,000원이다.

기초 상품 재고액 35,0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대한은 2014년 12월 1일에 (주)민국의 주식을 ₩1,500,000에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4년 말 ₩1,450,000이었으며, 2015년 말 ₩1,600,000이었다. (주)대한이 2016년 중에 동 주식을 ₩1,6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2016년의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세금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당기순이익: ₩150,000 증가, 총포괄이익: ₩50,000 증가

② 당기순이익: ₩150,000 증가, 총포괄이익: ₩150,000 증가

③ 당기순이익: ₩50,000 증가, 총포괄이익: ₩50,000 감소

④ 당기순이익: ₩50,000 증가, 총포괄이익: ₩100,000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기존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이익 ₩100,000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50,000 증가한다. 총포괄이익에서는 이 재분류가 상쇄되어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이익 ₩50,000**만 증가한다.

계산 과정

1. 처분 전 누적평가이익: 이 문제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유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 누적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014년 평가손실은 1,450,000 − 1,500,000 = −50,000원이고, 2015년 평가이익은 1,600,000 − 1,450,000 = 150,000원이다. 따라서 2015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50,000 + 150,000 = 100,000원의 평가이익이 남아 있다. 이는 **전기까지 이미 총포괄이익에 반영된 금액**이다.

2. 2016년 당기순이익: 처분대금 1,650,000원과 직전 장부금액 1,600,000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은 50,000원이다. 여기에 누적평가이익 10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50,000 + 100,000 = 150,000원이다. 이는 처분대금에서 취득원가를 뺀 1,650,000 − 1,500,000 = 150,000원과 같다.

3. 2016년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계이다. 과거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옮겨 넣었으므로 **중복 반영을 막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서 100,000원을 차감**한다.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총포괄이익 증가액은 150,000 − 100,000 = 50,000원이다. 이 금액은 2016년 처분대금과 2015년 말 장부금액의 차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2016년 당기순이익은 ₩150,000, 총포괄이익은 ₩50,000 증가하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당기 매출액은 ₩300,000이고 대손상각비는 ₩20,000이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기초 및 기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단, 매출은 모두 외상매출로만 이루어진다)

	기초	기말
매출채권	₩300,000	₩500,000
대손충당금	₩20,000	₩20,000

① ₩80,000

② ₩100,000

③ ₩200,000

④ ₩28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은 현금 회수뿐 아니라 **대손처리**로도 감소하므로, 대손처리액 20,000원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기초 매출채권과 당기 외상매출액의 합계에서 기말 매출채권과 대손처리액을 빼면 고객 현금 유입액은 **80,000원**이다.

계산 과정

대손처리액 계산: 표의 대손충당금은 기초와 기말이 모두 20,000원이다. 당기 대손상각비 20,000원을 인식하면 충당금이 증가하고,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면 충당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당기 대손처리액은 20,000 + 20,000 - 20,000 = 20,000원이다. 이 금액은 **현금 유입 없이 매출채권을 줄인 금액**이다.

고객 현금 유입액 계산: 매출은 모두 외상매출이므로 당기 매출액 300,000원 전액이 매출채권에 더해진다. 표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원과 합하면 회수 또는 대손처리 전의 채권 총액은 600,000원이다. 여기서 기말에 남은 매출채권 500,000원을 빼면 당기 감소액은 100,000원이다. 감소액에는 **현금 회수액과 대손처리액**이 함께 포함되므로, 현금 유입액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8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재료원가를 계산하면?

◯ 영업사원급여 ₩35,000 ◯ 간접재료원가 ₩50,000
◯ 공장감가상각비 ₩50,000 ◯ 매출액 ₩700,000
◯ 공장냉난방비 ₩60,000 ◯ 기본(기초)원가 ₩350,000
◯ 본사건물임차료 ₩40,000 ◯ 가공(전환)원가 ₩300,000

① ₩160,000
② ₩190,000
③ ₩210,000
④ ₩2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가공원가에서 제조간접원가를 뺀 직접노무원가 140,000원을 기본원가에서 차감하면 **직접재료원가는 210,000원**이다.

계산 과정

이 문제는 제품 제조에 직접 투입된 재료의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영업사원급여 35,000원과 본사건물임차료 40,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액 700,000원도 판매 수익이므로 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1. 제조간접원가 계산: 간접재료원가 50,000원, 공장감가상각비 50,000원, 공장냉난방비 60,000원은 제조 활동에 들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원가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50,000 + 50,000 + 60,000 = 160,000원이다. 간접재료원가는 재료에 관한 원가이지만 **직접재료원가가 아니라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된다.

2. 직접노무원가 계산: 가공(전환)원가는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드는 원가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가공원가 300,000원에서 제조간접원가 160,000원을 빼면 직접노무원가는 300,000 − 160,000 = 140,000원이다. 이 금액은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다.

3. 직접재료원가 계산: 기본(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기본원가 350,000원에서 앞서 구한 직접노무원가 140,000원을 빼면 직접재료원가는 350,000 − 140,000 = 210,000원이다. 이는 ③의 21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주)한국의 2015년 12월 31일 자본 내역이다.
(주)한국은 주권상장법인이며, 2016년 2월 주주총회에서 2,000주의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2,0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교부하였다면,
(주)한국의 자본금은?

자본	
자본금 (액면금액 @₩500)	₩ 3,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
이익준비금	2,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5,500,000
	₩ 12,000,000

① ₩3,000,000
② ₩4,000,000
③ ₩5,000,000
④ ₩6,0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모두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새로 교부한 4,000주에 주당 액면금액 500원을 곱한 2,000,000원을 기존 자본금에 더하면 5,0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 자본금: 자본 내역에서 자본금은 3,000,000원이고 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이다. 합계 12,000,000원은 자본금뿐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자본총계**이므로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주식배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주식을 교부한다. 이때 증가하는 자본금은 **교부 주식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이므로, 2,000주 × 500원 = 1,000,000원이다.

무상증자: 문제에서 정한 재원인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2,000주를 교부하므로 자본금 증가액은 2,000주 × 500원 = 1,000,000원이다. 이익준비금 2,000,000원 전부를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인 1,000,000원을 전입한다.

실시 후 자본금: 기존 자본금에 두 거래의 증가액을 각각 더한다. 3,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두 거래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이므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총계는 12,000,000원으로 유지된다.

NoteBase

문 10.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자산은 특정순자산, 고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② 지방세, 보조금 등의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비록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가 잘못되었다. 비교환거래 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므로, 청구권 발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규칙 제25조제1항·제4항은 이를 기능과 용도에 따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으로 나누며, 일반순자산을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액**으로 정한다.

② X: 비교환거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하지 않고 지방세·보조금 등을 받는 거래이다.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익 인식에는 **청구권 발생과 금액의 합리적 측정 가능성**이 모두 필요하다. 청구권이 생겨도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측정할 수 없더라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로 고쳐야 한다.

③ O: 규칙 제49조제2항은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상각대상 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정액법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 기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해당 자산 모두가 아니라 상각대상 자산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④ O: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은 재정상태표에 자산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대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관리에 관한 정보를 재무보고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ㄷ.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ㄹ.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ㄷ의 중요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며,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중요성 대신 적시성이 들어간다.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하면 **회계기준이 우선**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문항이 전제하는 구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려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경제적효익이 기대된다는 사정만으로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ㄴ. O: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고, 충실한 표현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두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ㄷ. X: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보기의 '중요성'을 '적시성'으로 고쳐야 한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표시 등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다.

ㄹ. X: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제정과 재무정보의 이해 등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개별 회계기준은 아니다. 서로 상충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개념체계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므로,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주)대한은 2016년 초에 (주)민국의 주식 10주를 ₩300,000 (@₩3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동 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34,000일 때, (주)대한이 동 주식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평가이익은?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수수료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평가이익은 기말 공정가치 340,000원과 최초 장부금액 300,000원의 차이인 4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최초 장부금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취득에 든 **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2016년 초 주식의 장부금액은 주식 대금인 300,000원이고, 별도 지급한 수수료 20,000원은 여기에 더하지 않는다.

2. 기말 공정가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주당 공정가치가 34,000원이므로 보유한 주식 10주의 기말 공정가치는 34,000원 × 10주 = 340,000원이다.

3. 평가이익: 기말 공정가치에서 평가 전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평가이익은 340,000원 − 300,000원 = 40,000원으로, ④의 금액에 해당한다. 수수료 20,000원은 이미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평가이익 계산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2016년 말 (주)한국의 제조간접원가 과대 또는 과소배부액은?

	2016년도 예산	2016년도 실제 발생액
직접재료원가	₩2,000,000	₩3,000,000
직접노무원가	₩1,500,000	₩2,200,000
제조간접원가	₩3,000,000	₩4,550,000

① 과대배부액 ₩150,000

② 과대배부액 ₩50,000

③ 과소배부액 ₩150,000

④ 과소배부액 ₩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배부율을 실제 직접재료원가에 적용한다. 예정배부액 4,500,000원이 실제 제조간접원가 4,550,000원보다 적으므로 **50,000원 과소배부**이다.

계산 과정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발생액 대신 예정배부율로 배부한다. 배부기준이 **직접재료원가**이므로, 예산 제조간접원가 3,000,000원을 예산 직접재료원가 2,000,000원으로 나눈다. 예정배부율은 $\frac{3,000,000}{2,000,000} = 1.5$, 즉 150%이다. 이는 직접재료원가 1원당 제조간접원가 1.5원을 배부한다는 뜻이며, 직접노무원가는 배부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150%를 **실제 직접재료원가** 3,000,000원에 적용한다. 예정배부액은 $3,000,000 \times 150\% = 4,500,000$원이다. 이 금액은 당기 생산에 배부한 제조간접원가이다.

3. 과대·과소배부 판정: 실제 제조간접원가 4,550,000원이 예정배부액 4,500,000원보다 크므로, 실제 발생한 원가 중 **배부하지 못한 금액**이 남는다. 과소배부액은 4,550,000원 − 4,500,000원 = 50,000원으로, ④의 과소배부액 5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준고정(계단)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업도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조업도와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②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한다.

③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일정 조업도 범위를 초과하면 총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한다.

④ 일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므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준고정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구간에서는 총원가가 유지되다가, 그 구간을 넘으면 **총원가가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조업도가 조금 늘 때마다 원가가 비례하여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조업도는 생산량 등 기업의 활동 수준을 뜻한다. 준고정(계단)원가는 조업도가 일정 구간에 머무는 동안에는 총액이 고정되어 있고, 더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 때 총액이 증가하는 원가이다. 문제의 가정대로 조업도 이외의 조건은 일정하게 두고 판단한다.

① X: 준고정원가는 같은 조업도 구간에서 총원가가 일정하므로, 조업도가 증가하면 이를 나누어 부담하는 수량이 늘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총원가도 증가하므로 단위당 원가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일정 범위에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은 변동원가의 특성이다.

② X: 준고정원가의 총액은 일정 조업도 구간 안에서는 **조업도가 변해도 일정**하다. 조업도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하는 것은 변동원가의 특성이다. 준고정원가는 구간의 한계를 넘을 때 총액이 증가한다.

③ O: 준고정원가는 일정 조업도 구간에서는 필요한 자원의 양이 같아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그 구간을 넘으면 자원을 추가해야 하므로 **총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일정 생산량까지 감독자 한 명으로 관리하다가 그 생산량을 초과하면 감독자를 한 명 더 고용해야 하는 경우, 감독자 급여 총액이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④ X: 같은 조업도 구간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다는 부분은 맞지만, 단위당 원가의 변화 방향이 반대이다.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조업도로 나눈 값이므로, 총원가가 같은 상태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따라서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제품 X, Y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제품 X, Y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한 묶음은 X제품 4개, Y제품 1개로 구성된다.
손익분기점에서 각 제품의 판매량은?

	제품 X	제품 Y
단위당 판매가격	₩110	₩550
단위당 변동원가	₩100	₩500
총 고정원가	₩180,000	

① 제품 X: 1,000개, 제품 Y: 1,000개

② 제품 X: 2,000개, 제품 Y: 2,000개

③ 제품 X: 2,000개, 제품 Y: 8,000개

④ 제품 X: 8,000개, 제품 Y: 2,000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품 X 4개와 Y 1개로 구성된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90원**이다. 총고정원가 180,000원을 충당하려면 2,000묶음을 판매해야 하므로, 제품별 판매량은 X 8,000개, Y 2,00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충당하고 이익을 내는 데 쓰인다. 표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를 이용하면 X는 110 − 100 = 10원/개, Y는 550 − 500 = 50원/개이다.

2. 한 묶음의 공헌이익: 판매 구성이 **X 4개와 Y 1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묶음을 판매량 계산의 단위로 삼는다.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10 × 4 + 50 × 1 = 90원/묶음이다. 이는 한 묶음을 팔 때마다 총고정원가를 90원씩 충당한다는 뜻이다.

3. 손익분기점의 묶음 수: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 영업이익이 0이 된다. 따라서 총고정원가를 한 묶음의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필요한 묶음 수를 구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180,000원90원/묶음=2,000묶음이다.

4. 제품별 판매량: 2,000묶음에 들어 있는 제품 수는 X가 2,000 × 4 = 8,000개, Y가 2,000 × 1 = 2,000개이다. 이 판매량은 ④의 X 8,000개, Y 2,000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장부금액 자료이다. (주)한국은 2015년 초에 장부금액 ₩1,500,000(취득원가 ₩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인 기계장치를 ₩400,000에 처분하였다. 2015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와 2015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단,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14년 기말	2015년 기말
기계장치	₩11,000,000	₩1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4,500,000)

① 취득원가: ₩3,000,000, 감가상각비: ₩500,000

② 취득원가: ₩3,000,000, 감가상각비: ₩1,500,000

③ 취득원가: ₩4,000,000, 감가상각비: ₩1,500,000

④ 취득원가: ₩4,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제거**하므로, 기말 잔액과 기초 잔액의 차이만으로 당기 취득액과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없다. 처분으로 감소한 금액을 반영하면 2015년 취득원가는 4,000,000원, 감가상각비는 1,5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4년 기말 잔액은 2015년 기초 잔액이다. 표의 기계장치 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 취득원가 잔액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의 변동을 각각 계산한다.

1. 당기 취득원가: 기계장치의 기말 취득원가는 기초 취득원가에 당기 취득액을 더하고 처분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뺀 금액이다. 처분 시 제거할 금액은 장부금액 1,500,000원이나 처분대금 400,000원이 아니라 **처분 자산의 취득원가 2,5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취득액은 12,500,000 − 11,000,000 + 2,500,000 = 4,000,000원이다.

2. 당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은 당기 감가상각비만큼 증가하고, 처분한 자산에 해당하는 누계액만큼 감소한다. 기초 누계액 4,000,000원에서 **처분 자산의 누계액 1,000,000원을 제거**하면 3,000,000원이 남는다. 여기에 당기 감가상각비가 더해져 기말 누계액 4,500,000원이 되므로, 감가상각비는 4,500,000 − 3,000,000 = 1,500,000원이다. 해당 자산은 연초에 처분했으므로 그 자산의 2015년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2015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4,000,000원이고,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1,5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의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가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다.

③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모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아래 판단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국가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후에는 국가 재무제표에도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며, 국가의 유동성 순서 배열 규정은 삭제되었다.

① X: 개정 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하고, 현금흐름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은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주석으로 재무제표를 구성한다. 선지는 두 기준의 차이를 거꾸로 설명했으며, 개정 전 기준에서는 **국가는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개정 전 국가회계기준 제9조제2항은 자산을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주민편의시설'을 별도 분류로 두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주민편의시설을 별도 자산 항목으로 분류**한다.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도서관·주차장·공원·박물관·미술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산의 분류명에 관한 차이이며, 국가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국가회계기준 제38조의2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재평가를 규정하며, 재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적용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49조는 일반유형자산을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상각대상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 기준의 차이이다.

④ O: 개정 전 국가회계기준 제8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13조제1항은 모두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하였다. 유동성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뜻하며, 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항목을, 부채는 상환기일이 빨리 도래하는 항목을 앞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금은 건물보다 앞에, 단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금보다 앞에 배열한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주)한국의 201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이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비율이 300%일 때,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주)한국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현금	₩2,000	매입채무	?
매출채권	?	단기차입금	₩2,000
재고자산	?	사채	₩10,000
유형자산	₩20,000	자본금	?
		이익잉여금	₩5,000
자산 합계	₩50,000	부채와 자본 합계	₩50,000

① ₩15,000
② ₩20,000
③ ₩23,000
④ ₩2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동비율 300%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3배**라는 뜻이므로 유동부채는 10,000원이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자본총액은 30,000원이며, 여기서 이익잉여금 5,000원을 빼면 **자본금은 2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동자산 계산: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50,000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20,000원이다. 현금·매출채권·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을 구성하므로, 이들의 개별 금액을 모두 구할 필요 없이 유동자산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2. 유동부채 계산: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유동비율이 300%이므로 **유동자산은 유동부채의 3배**이다. 따라서 유동부채는 $\frac{30,000}{3} = 10,000$원이다. 이 금액은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2,000원의 합계이며, 사채 10,000원은 비유동부채이다.

3. 자본금 계산: 부채총액은 유동부채 10,000원과 사채 10,000원을 합한 20,000원이다. 자산 = 부채 + 자본이므로 자본총액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표에서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므로 **자본총액에서 이익잉여금을 차감**한다. 자본금은 30,000 − 5,000 = 25,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의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가공비 완성도 4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에 해당하는 공손수량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의 비정상공손수량은?

	물량(개)	가공비 완성도
기초재공품	1,000	(완성도 30%)
당기착수량	4,300	
당기완성량	4,300	
공손품	300	
기말재공품	700	(완성도 50%)

① 50개

② 85개

③ 215개

④ 250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30%여서 당기에 검사를 받고, 기말재공품도 완성도 50%여서 검사를 통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기 검사 통과 정상품은 5,000개**이고, 정상공손 250개를 전체 공손 300개에서 뺀 **50개가 비정상공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수량
품질검사는 가공비 완성도 40%에서 이루어진다. 기초재공품 1,000개는 기초 완성도가 3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당기에 완성되면서 검사를 통과한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이라도 당기완성량 4,300개에서 **기초재공품 수량을 빼지 않는다**. 기말재공품 700개도 완성도가 50%로 검사시점을 지났으므로 정상품 수량에 포함한다. 당기 검사 통과 정상품 수량은 4,300 + 700 = 5,000개이다.

2. 정상공손수량
정상공손은 **당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수량의 5%**이므로, 정상공손수량은 5,000 × 5% = 250개이다. 공손품 300개는 검사에서 탈락한 수량이므로 이 기준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비정상공손수량
전체 공손수량에서 정상공손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이 비정상공손이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수량은 300 − 250 = 50개로, ①의 50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의 산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ㄷ.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ㄹ. 유형자산손상차손
ㅁ.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ㅂ. 세후 중단영업손익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ㅁ, ㅂ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을 산정한 뒤에는 **기타포괄손익**을 반영하여 총포괄손익을 구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가 이에 해당하며, **세후중단영업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정한 다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을 더하거나 빼서 총포괄손익을 표시한다. 따라서 각 항목이 당기손익인지 기타포괄손익인지 구분해야 한다. 금융자산은 문제에 제시된 단기매매·매도가능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ㄱ.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당기손익: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평가이익이라도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단계에 포함된다.

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손상차손과 구별되는 평가손실이므로, 당기순손익을 직접 줄이지 않고 그 이후 총포괄손익을 산정할 때 차감한다.

ㄷ.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생기는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외화거래의 결제 등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인 외환차이와 구별**하며, 당기순손익 산정 이후에 반영한다.

ㄹ. 유형자산손상차손 —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의 비용**이다. 재평가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예외가 있지만, 이 문항에는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상차손으로 판단한다.

ㅁ.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등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원가 가운데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재측정요소는 당기순손익 산정 이후에 반영한다.

ㅂ. 세후 중단영업손익 — 당기손익: 중단영업의 성과는 계속영업의 성과와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당기순손익에 포함**한다. 계속영업손익에 세후 중단영업손익을 합산하여 당기순손익을 구하므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아니다.

당기순손익 산정 이후에 반영할 항목은 ㄴ · ㄷ · ㅁ이며,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